



건강홍보대사 주상욱

촬영장에서도 누구보다 더 건강한 이유 규칙적인 식사

드라마 '가시나무새' '파라다이스 목장' '자이언트' '선덕여왕' 등에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주상욱이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건강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오랜 무명시절을 이기고 특유의 착실한 이미지와 깔끔한 인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에게서 매력 넘치는 건강 스토리를 들어봤다.

실장님 전문 배우, 실장님 밖으로 나온다

주상욱을 따라다니는 별명은 실장님, 재벌 2세 전문배우다. 연기를 시작한 13년 전부터 수많은 역을 소화했음에도 켄틀하고 반듯한 이미지 덕분에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만은 쉽게 얻지 못하는 캐릭터가 익숙한 이유도 다 그가 쌓아올린 켄틀한 이미지 덕분이다.

주상욱은 지금껏 드라마에서 주로 부잣집 아들이나 실장님 역할을 맡아왔다. 2007년 '깍두기'에서는 비구니를 사랑한 박 실장, 2008년 '아빠 셋 엄마 하나'에서는 미망인을 사랑한 정 실장 역을 연기했다. 2008년 '춘자네 경사났네'에서는 미혼모를 사랑한 이 실장으로 출연했고, 2009년 '그저 바라 보다가'에서는 톱스타를 사랑한 김 실장으로 2010년 '자이언트'에서는 원수의 동생을 사랑한 조 실장 역을 맡으며 실장님 역의 대표 배우로 떠올랐다. 특히 '자이언트'에서는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눈물겹도록 사랑하지만, 겉모습은 까칠하고 무뎠직한 실장님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종영한 '가시나무새'에서 주상욱은 조금 달랐다. 유력 재벌가의 서자로 태어나 승승장구하다, 후계자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밑바닥부터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는 인물을 연기했다. 평소 쌓아올린 이미지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내내 그는 놀라운 집중력과 냉철한 결단력, 어떤 상황에서도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냉정함을 연기했다. 남모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실장님으로 그의 연기는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깊어졌다.

가시나무새'에서 주상욱이 이렇게 집중력 높은 연기력을 자랑할 수 있던 것은 오랜 무명시절을 거치며 쌓아온 그만의 연기 내공 덕이다. 오랜 무명시절을 거친 그는 당구장, 발레파킹 등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연기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의 경험은 그를 끈게 머물게 했다. 그래서 '실장님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뒤로하고 그가 선보인 강렬한 캐릭터, 나쁜 남자 캐릭터 등이 공감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건강홍보대사로 건강의 중요성 홍보할 것

젠들하고 반듯한 배우, 어려움을 극복한 배우 등의 이미지 덕분인지 주상욱은 지난 4월 7일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건강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게 될 그는 매일 1시간 30분 정도의 유산소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한다.

주상욱은 스스로 "워낙 건강 체질이다."라고 말할 만큼 건강한 배우다. 그래서 빡빡한 촬영 스케줄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 없이도 "잘 먹는 것이 최고죠."라고 밝힐 만큼 건강에는 자신 있는 그다.

드라마 '가시나무새' 종영 후 주상욱은 "작품이 끝나면 늘 시원하고 섭섭하다. '가시나무새'는 어떤 작품들보다 아쉬움이 많았던 작품이다. 늘 부족했던 것 같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작품 후 느끼는 아쉬움이 차곡차곡 쌓여 단단한 배우로 다져진 주상욱의 모습과 건강홍보대사로서 건강한 생활로 채워질 그의 앞으로 모습이 기대된다. **MEDI**CHECK

